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 =====
- 발 신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언론팀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담당
 - 배포일 : 2017년 1월 11일(수)
 - 홈페이지: citizen2017.net □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텔레그램 @bisang2016

보도자료

퇴진행동 전국대표자회의 신년 기자회견 개최

박근혜 즉각퇴진, 조기탄핵 및 퇴진행동의 신년메시지 전달
故정원스님 추모와 장례일정 발표

※ 일시장소 : 2017. 1. 11(수) 오후 1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10호

1.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1월 11일(수) 오후 1시 전국대표자회의 2017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해 신년메시지를 전합니다. 퇴진행동 전국대표자회의는 청와대 관저에서 떠나지 않는 박근혜의 즉각 퇴진과 헌법재판소 조기탄핵 촉구, 그리고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소신항거한 정원스님의 명복을 빌며 이후 장례 일정 등을 발표합니다.
- 귀 언론사의 취재와 관심을 바랍니다.

○ 퇴진행동 주요 일정

- 1.11(수) 오후 1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전국대표자회의 신년 기자회견
- 1.11(수) 오후 2시 30분. 헌법재판소 앞. 세월호 7시간 관련 퇴진행동 법률팀 기자회견
- 1.12(목) 오전 10시 민주노총 13층. 퇴진행동 기자간담회(1.14 12차 범국민행동 진행 계획 발표, 경찰의 집회 방해에 대한 퇴진행동 대응 방안 등)
- 1.12(목) 오후 1시 30분. 특검 사무실 앞(선릉역). 특검 수사에 대한 퇴진행동 입장 발표
(이재용 수사, 현대차 등 재벌구속수사 관련)

○ 별첨자료

1. 전국대표자회의 신년 기자회견문
2. [별첨2] 故 정원스님 장례 절차와 일정(장례일정은 시간이 변경 될 수 있음)

1987년을 넘어 시민혁명의 새로운 시대를 열자

2016년의 마지막 계절은 춥지 않았다. 2017년의 첫 계절 역시 뜨겁다. 박근혜와 공범자들이 저지른 범죄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하지만 이들에 맞선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행동으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1987년 호헌철폐와 독재타도 합성으로 시민주권 시대를 열었다면 30년 이후 세계사에 남을 시민혁명의 한 장을 다시 쓰고 있다. 온몸으로 기록하고 있다. 성별과 나이, 지역과 종교, 직업과 계층, 정치적 지향의 차이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광장에 모였다. 박근혜를 정점으로 한, 헌법을 파괴하고 부정 부패한 범죄자들을 몰아내기 위해 모였다.

박근혜 당선 이후 눈물이 산을 이루었다. 몸을 던져 절망 했던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 가난으로 인해 내 물리고 죽어간 사람들. 세월호의 희생자들. 국가폭력에 희생된 백남기 농민과 민주주의를 지키다 감옥에 갇힌 양심수들.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고 했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밀실에서 합의했다.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배치를 강행했고, 일반해고지침으로 노동권을 추락시켰다. 문화예술인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했다.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밥쌀용 쌀을 수입했다. 대선부정으로 시작된 공작정치는 김영한 업무일지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러한 정부가 존재 했다는 부끄러움은 국회의 압도적 탄핵 가결을 이끌어냈다. 광장의 촛불민심이 국회의 기회주의를 뒤집었다. 직접민주주의의 힘이 대의제의 한계를 이끌었다. 놀라운 시간을 관통하고 있다.

그러나 가야할 길이 멀다. 박근혜는 아직 청와대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 황교안은 대통령 놀음에 여념이 없다. 최순실은 감옥에 있지만 김기춘과 우병우는 버젓이 활보하고 있다. 이재용과 정몽구, 신동빈의 공간은 여전히 탐욕으로 넘실대고 있다. 현재의 시간을 늦추려는 시도가 공안몰이와 짝을 이루고 있다. 박근혜 비호세력이 계엄을 말하며 평화를 위협한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백남기 특검, 사드배치 중단, 언론장악 중단 방송법 개정, 성과연봉제 저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등 적폐청산 과제는 준비하다. 공범자 처벌과 박근혜 체제 청산을 위해 더 많은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특권이 지배하는 세상이었다. 힘있는 소수가 힘없는 다수를 능멸하는 세상이었다. 부정의가 지배하는 세상이었다. 박근혜와 함께 사라져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2017년 우리가 새롭

게 쓰는 시민혁명은 박근혜와 함께 박근혜 체제를 청산하는 일이다. 우리는 자유로운 시민으로 광장에 섰다. 최선을 다해 살아도 최악으로 살아야하는 세상을 거부할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헬조선이라 더 이상 쓰지 않을 것이다. 정의로운 사람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것이다. 힘이 없어도 몫이 있는 세상을 만들 것이다. 누구 하나 자신이 가진 정체성과 신념으로 인해 버림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 것이다. 1987년 시민이 헌법을 바꿨다면, 2017년 우리들은 세상을 바꿀 것이다. 반칙과 패권을 부수고 정의와 진실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세상, 주권자가 통치하는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 것이다.

우리는 2017년 새로운 다짐을 선포한다.

1. 박근혜 즉각 퇴진, 조기탄핵의 그날까지 광장에서 촛불을 들 것이다.
2. 공범자 황교안의 국민사찰 공작정치체제를 그대로 둘 수 없다. 공작정치와 여론조작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황교안을 비롯한 타락한 공안모리배들을 감시하고 부당하게 구속된 양심수 석방 등 주권자의 권리를 되찾을 것이다.
3. 박근혜 공범자들을 완전히 처벌하고 적폐를 청산하는 날까지 물러서지 않고 싸울 것이다.
4. 재벌체제를 비롯한 특권과 반칙의 질서, 불평등과 불공정, 배제와 차별로 가득한 헬조선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것이다.

“지금 광장이 그랬듯이 정치권에만 맡기지 않고 주권자가 주인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일상의 공간을 광장으로 확대하기 위해 토론을 벌일 것이다. 새 대한민국을 위한 주권자대토론과 각계각층의 사회대개혁 운동을 제안한다.”

“이를 실현하고 1월 조기탄핵을 관철하기 위해 1월 21일을 전국 동시다발 집중촛불의 날로 선포한다.”

2017년 1월 12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별첨2] 故 정원스님 장례절차와 일정

※ 장례일정 : 시간 변경 될 수 있음

민주 정의 평화의 수행자 정원스님 시민사회장

소신공양 하신 정원 스님의 큰 뜻

- ▶ 박근혜 퇴진.구속
-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 ▶ 한일위안부 및 한일 군사협정 폐기
- ▶ 사드반대

1. 정원스님 소신공양 경과보고

▶ 1월 7일

22:30경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분신

22:45경 119로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응급실로 후송

▶ 1월 8일

01:40경 권영국 변호사 임시법률대리인으로, 박교일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대표, 보혜스님, 김진경 서울대병원노조

지부장과 함께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정원스님
상태 확인.

(얼굴 부위 심하게 손상되어 기도 절개 기도삽관으로 인공호흡, 의식이 없고
자극에 반응이 없는 상태로 확인됨. 병원 측으로부터 2도 화상 70% 이상, 3
도 화상 40% 이상으로 위중하다는 설명을 들음)

02시경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외과중환자실로 환자 이동

※ 정원스님의 동생(서상원)분이 박교일 비상대책위 대표 휴대폰으로 “스님(서용원)에 대한 처리사항은 대책위 박교일님 등에게 일임합니다 동생 서상원” 문자 보내음.

10:10 박교일 대표, 권영국 변호사, 김진경 지부장 중환자실 환자 면회, 책임자인 이한나 담당의 사로부터 환자상태 설명 들음(사망확율 90% 이상).

11:30 박교일 대표, 권영국 변호사, 김진경 지부장, 병원의 연명치료와 관련한 동의서(연명치료 받지 않겠다는 내용) 작성.

20:40 동생 서상원이 박교일 비상대책위 위원장 휴대폰으로 “정원스님(서용원) 관련 법적 권한은 권영국 변호사에게 모두 일임합니다 동생 서상원” 문자 보내음.

▶ 1월 9일

11:00 박교일 대표, 권영국 변호사 중환자실 면회 이한나 담당의사로부터 설명들음 (혈압 유지되고 산소 수치는 괜찮은 편이나 이산화탄소 수치가 한계치를 넘음)

19:40 정원스님 열반하심

2. 정원스님 장례 계획

▶ 장례명 : 민주 정의 평화의 수행자 정원스님 시민사회장

▶ 장례 위원회 구성 : 퇴진행동과 범불교시국회의가 공동으로 장례위원회 구성
고문

상임장례위원장

공동장례위원장

공동집행위원장

대변인

기획위원회/법률위원회/의전위원회/치산위원회/총무위원회/조직위원회/운구위원회/홍보위원회/대외협력위원회/문예위원회

▶ 장례일정

- 1월 13일(금) 오후 7시 추모문화제 (장례식장)

- 1월 14일(토)

12시 발인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노제 (서울대병원 -> 조계사 -> 청와대 앞 -> 열린시민공원)

영결식

장지출발

※ 정원스님 소신공양 관련 범불교시국회의 장례 참여 계획

1. 장례대책위원회에 범불교시국회의 차원에서 참여

2. 영결식까지 매일 범불교시국회의 소속 스님들께서 극락왕생 발원 염불정진

■ 화요일 : 도철스님

- 수요일 : 일문스님
- 목요일 : 혜문, 범상스님
- 금요일 : 조계종 사노위 스님

3. 매일 저녁 7시 범불교시국회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금강경 독경

4. 1월 13일 (금) 저녁 7시 추모문화제 범불교시국회의 주관

- 한글 ‘영가전에’ 합송
- 추모공연 및 발언

※ 별첨 : 무상법문집(영가전에, 극락왕생 발원문 등)

5. 장례식 일정 : 1월 14일 (토)

- 발인 : 12시 서울대 장례식장 : 불교의식 주관(집전 : 법일스님)
- 노제 : 오후 1시 조계사 : 노제 주관(조계사 스님들 참여)
 - 영정과 위패 모시고 조계사 일주문 앞서 진행후 영결식장으로 이동
- 영결식 : 오후 2시 광화문광장 : 영가축원 주관(협의 필요)
- 장지 : 오후 3시 출발 : 인례(일문스님, 도철스님)

6. 범불교시국회의 주관 49제 봉행

- 일시 : 2월 25일 (토) 오후 3시경
- 장소 : 광화문광장(괘불 모시고 의식 진행)